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 9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○ (UAE) 국가 단위 통합 관광 브랜드 도입

- UAE 경제관광부는 ATM 2026에서 UAE의 7개 에미리트를 포괄하는 'Visit UAE' 브랜드와 'UAE Grand Tour'를 발표
- 'UAE Grand Tour'는 최대 14일 복수 에미리트 방문 일정에 숙박·교통·관광·식사·체험을 묶어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여행업계의 상품 구성 도구도 제공함. 이는 개별 도시 홍보에서 광역 순회·체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

○ (UAE) 두바이, 거주자 친지 초청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 조기 마감

- 두바이 경제관광부(DET)의 거주자 친지 초청 프로그램 'A Dubai Invite'가 7월 20일 출시 후 신청 9만 건 이상, 혜택 패키지 배포 3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접수를 조기 마감
- 거주자를 자발적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기반 마케팅을 통해, 방문객 유치 비용을 절감하고,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하반기 체류형 소비 창출을 도모한 사례로 평가

□ 비자 및 항공 동향

○ (UAE)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항공사 UAE 노선 재개 동향

- 중단되었던 UAE 노선이 점진적으로 복구되고 있으나, 국가별 여행 권고 및 안보 평가에 따라 항공사별 재개 시점은 26년 10월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큰 격차를 보임
- (10월 중 재개 예정) 에어아스타나(10.1~2), 필리핀항공(10.2), 에어프랑스(10.13 이후), 위즈에어(10.25~27)
- (10월 말~11월 재개 예정) 루프트한자·스위스항공·KLM·싱가포르항공·ITA 항공·에어발틱(10.24 이후 단계적), 유로윙스(11.1), 영국항공(11.4)
- (27년 이후) 에어캐나다(2027년 1월 중순), 버진 아틀란틱(2027년 10월), 영국항공 아부다비 노선(2027-28 동계)

○ (UAE) 에어아라비아, 샤르자-방콕 노선 일 4회로 증편

- 에어아라비아가 '26년 10월 25일부터 샤르자-방콕 직항 노선을 기존 일 3회에서 일 4회로 확대 운항함

□ 아웃바운드 여행 동향

○ 올가을 MENA 지역 여행 트렌드, '문화·단기 여행·자연'이 주도

- 온라인 여행 플랫폼 Wingie 분석에 따르면, MENA 지역 여행객들이 온화한 가을 날씨를 활용해 문화 중심의 도시 탐방, 단기 주말여행, 자연 친화적 휴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됨
- 이스탄불·바쿠·트빌리시(문화), 암만·무스카트·도하(단기 도심 탐방), 알올라·라스알카이마(자연) 등 목적별 여행지의 다변화 및 세분화 진행

○ (GCC) 인도 케랄라 주, GCC관광객 급증

- '25년 GCC 국가발 케랄라 방문객 수는 총 13만 6,000명으로 전년(10만 8,000명) 대비 약 26% 증가함. 특히 오만은 전년 대비 69.7% 급증한 65,132명을 기록하며 전체 해외 시장 3위에 오름
- 케랄라 주는 중동 현지 네트워크를 공략하여, '인도-아랍 커넥트' 개최 및 로드쇼 확대를 통해 현지 투어 연계 업체·항공사·호텔 체인과의 B2B 파트너십 구축을 가속화 중임

※ 출처: Gulf News, Air Arabia, Trade Arabia, Wingie 등 현지 정부·언론자료 종합